하늘 결재 없는 땅의 노력

(스가랴 5장 1절~11절)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 결재 없는 땅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결재 없는 땅의 노력'
하늘의 결재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땅에서 노력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기는커녕 실패에 덧붙여서 저주까지 내리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보았던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오늘 본문을 풀어줄 열쇠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람나무의 환상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람나무의 환상은 십자가 생활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환상의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이웃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금 파이프처럼 뻗어 나와서 주발에 닿았고 그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온 기름은 주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발에서부터 다시 일곱 개의 금 파이프가 뻗어서 일곱 개의 등잔으로 연결이 되고 흘러들어온 기름은 등잔의 불을 켜지게 합니다. 여기서 등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서 나온 기름이 일곱 등잔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이 환상은 성전재건이라는 과업 앞에 놓이게 된 스룹바

벨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성전의 재건을 바라보시고 관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등잔이 일곱 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곱이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천지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도 일곱 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도록 성전재건 작업을 수행해나가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을 뜨게 하는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이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에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뜨일 것이고 보시기에 좋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의 환상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에 주석들조차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두루마리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결재서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실 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과 뜻을 성령님도 예수님도 아시도록 표현하시고 우리도 알 수 있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결재되어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면 됩니다. 결재되었다는 것은 이제 실행만이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늘에서 결재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인과관계를 생각하며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발견되는 그 원인 자체가 하늘의 섭리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땅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왜 이러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땅을 살면서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늘의 결재를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취하려는 대신에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관심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반면 모든 짐승들은 그 관심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늘에서 결정되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결재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갖고 하늘의 결재에 의해서 땅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결재가 내려진 두루마리에 저주가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기록된 이유를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크기와 저주의 정도를 생각하면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비교적 작은 죄악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계명을 겹쳐서 어기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에 강화시켜놓으신 기준을 따르자면 십계명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인 간음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아닌 하필이면 도둑질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감람나무 환상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총제적인 죄악이 바로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죄악의 유전 인자가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자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곧 마음의 관심이 세상일들을 향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일이 아닌 세상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마음의 관심을 다 쏟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상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켜지면서 하나님에 의해 삶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람나무가 아

닌 사람들은 세상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자체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감람나무인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의 관심을 쏟는 사람이고, 감람나무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마음의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고 금고 문을 열어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핵심적 정의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거머쥐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느라 세상에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반대로 감람나무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세상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에 "당신의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Make yourself at home)."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속삭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집처럼 여기며 편하게 지내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연하게 세상을 집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마음의 기름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등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일곱 개의 눈을 켜시고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마다 마음을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인도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일곱 개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의 끝이 바로 실패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준비하셨으나 도둑질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결재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의 기름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을 쏟으며 사는 동안 삶 전체를 도둑질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참 대단합니다. 도둑질로부터 깊은 신앙적 고찰을 이끌어낸 스가랴 선지자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표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지만 죄악의 뿌리를 도둑질로 보았다는 점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감람나무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한 사람들입니

다.

어제 주방의 닥트를 청소하시는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말과 행동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 먹으라고 오징어를 구워서 잘라놨는데 먹으면 안 되냐고 하고, 집안 살림에 대해 이건 뭐고 저건 뭐냐고 계속해서 물으시며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물론 이분이 도둑질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물건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당히 희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 세상에 대해 자꾸만 마음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고 주셨더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 뜻대로 키우고자 합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거북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도록 계획을 하시고 결재하시려고 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는 스스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에 저주를 써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한 면은 도둑질에 대한 저주이고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도둑질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 스스로 눈을 치켜뜨고 손대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선민과 이방인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선민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주인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 눈을 치켜뜨고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손님대접까지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눈을 치켜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써서 일을 해보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별개의 죄로써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본질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천재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에바란 약 2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됫박이나 가죽부대 같은 용기를 말합니다. 그 속에 여인이 들어간 모습을 죄라

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유혹을 받아 바라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육체로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대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아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류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대상들을 향해 두 눈을 치켜뜨고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내 삶을 바라보는 대신에 내 눈으로 삶을 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상기시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곱 개의 눈이 떠지면서 내가 등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을 직접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세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대상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에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마음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을 등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들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결제될 수밖에 없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림으로써 육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등지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등지고 있는 삶에 대해 창조 때에 세상을 보시던 아버지의 일곱 개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